

	독 일 (프 랑 크 푸 르 트) 사 무 소 해 외 동 향 보 고 서	작성팀	마케팅지원팀
		담당자	정훈희 소장
		일 시	2024. 7.

CEPA Insight

- 전기차 관세 인상 등 EU의 중국 견제 강화에 따라 중국 기업의 유럽 생산시설 설립, 현지 기업과의 합작 투자 등 대응이 활발히 진행 중으로
- 치열해질것으로 예상되는 기술 및 가격 경쟁에 대한 기업별 로드맵 중요

1] 하벡 장관, 한국과 중국 방문

- 하벡 부총리 겸 경제기후보호장관은 5일간(6.20.~24.)의 일정으로 한국(서울)과 중국을 방문하고, 양국 정부 및 EU, 기업 대표들과 면담
- 서울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, 안덕근 산자부장관 등과 회동하고, 하이테크 분야의 경제 및 무역관계, 기후보호 및 에너지정책 협의
- 중국방문에서는, EU-중국 간 전기차에 대한 징벌적 관세에 대해 논의
- 금번 방문 이후 EU와 중국은 수주 내 협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힘(6.22.)

※ (출처: BMWK, 2024.06.19.)

2] 독일 국가경쟁력, 10년 전 6위에서 올해 24위로 추락

- 스위스 경영대학원 IMD가 발표한 국가경쟁력 평가 종합순위에서 독일은 10년전 6위 → 올해 24위로 밀려남(2023년: 22위)

※ IMD는 경제 테이터 및 경영인 설문조사를 통해 경제성, 정부효율성, 기업 효율성, 인프라 등 4개 항목에서 각국의 국가경쟁력을 평가

- 지난해 대비 독일의 경제성은 12위→13위로, 정부의 효율성의 경우 27위→32위로, 기업의 혁신성과 책임감은 29위→35위로, 인프라 분야에서는 14위→20위로 각각 하락

- IMD 상위 랭킹은 1위 싱가포르, 2위는 스위스, 3위 덴마크가 차지
- 그 외 미국 12위, 중국 14위, 일본 38위
- 한국은 지난해 28위에서 20위로 8단계 상승하여 역대 최고 순위 기록

※ (출처: Spiegel, 2024.06.18.)

③ 독일 자동차 제조업체, 1분기 이익 25% 감소

- 컨설팅사 EY가 세계 16개 자동차사들의 재무수치를 평가한 결과, 1분기 독일 자동차 제조사들은 국제비교 부진한 실적을 기록
 - 폭스바겐, BMW, 메르세데스-벤츠 1분기 매출은 1.7%, 이익은 25% 감소
- 매출 대비 영업이익을 비교한 수치인 평균 Ebit(순이익에서 이자와세금을 빼기 전 이익)이 가장 높은 기업은 기아로 13.1%를 기록(전 세계 자동차사들의 평균 Ebit: 7.4%)

※ (출처: Welt, 2024.06.12.)

④ EU의 중국 전기차 관세인상에 따른 독일과 중국의 타격 전망

- EU가 중국산 전기차 관세율 인상(현 관세율 10% → 다음달부터 최고 48.1%)은 독일 자동차업체에 큰 타격이 가해질 것으로 전망
 - 폭스바겐 자동차의 최대 판매지는 중국으로 연간 3백만대 판매, BMW와 메르세데스의 경우 연간 판매 수 수십만대에 달함
- ※ 독일 수입 전기차 중 중국산 비중 '20.) 12% → '23.) 29% → '24.상반기) 40.9%
- ※ EU의 발표이후 폭스바겐, BMW, 메르세데스, 포르쉐의 주가가 크게 하락
- 독일경제연구소(IW)의 설문조사 결과, 독일 내 다수기업들은 중국 정부가 경쟁을 왜곡한다며 때문에 관세 인상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남
- 반면, 중국은 EU의 관세인상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추정
 -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중국 생산 전기차에 대해 30%의 가격 우위를 가지고 高마진을 고려하고 있어, 관세인상이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려면 관세가 현재 10%에서 최대 50%까지 증가해야 한다고 분석
 - 그러나, 관세가 인상되면 자동차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도 병존

※ (출처: Automobilwoche, 2024.06.16.)

⑤ (충남투자기업) BASF, 인도네시아 니켈 생산시설 투자 중단

- 화학기업 BASF는 프랑스 광산그룹 Eramet(에라멧)과 공동 추진 중이던 인도네시아 니켈-코발트 생산시설 건설 프로젝트 중단을 발표
 - BASF는 차세대 성장사업으로 배터리 소재를 선택했고, 배터리 생산용 원자재 자체 조달을 위해 노력 중으나 구매 등 외부 조달로 전환 계획
- BASF의 인도네시아 니켈 생산시설 건설 투자 중단의 이유는
 - 니켈의 배송 및 가용성이 크게 향상되어 안정적인 공급 보장을 위해 더 이상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과 동시에
 - BASF의 경제상황이 악화되며 전체적인 투자 프로그램 삭감 중

※ (출처: Handelsblatt, 2024.06.)

⑥ (충남투자기업) 유미코아, 전기차 수요 둔화에 따른 수익 전망 하향 조정

- 전기차 배터리 내 가장 비싼 부품인 양극재를 제조하는 유미코아가 최근 '전기차 수요의 급격한 성장 둔화'에 대해 언급
 - 동 결과로, '24년 배터리 소재 물량의 수요 감소가 예상되어 수익 전망을 하향 조정했으며, 유미코아 주가는 10년 만에 최저치 기록
 - 전기차 수요의 급감의 원인으로 EU 자동차 제조업체의 전기차 생산 계획 축소 및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의 예상 물량 미실현을 꼽음
 - 또한, 니켈과 코발트 배터리 소재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유미코아는 리튬인산철(LFP) 양극재*를 생산하는 중국 업체들과의 도전에 직면
- * 리튬인산철을 주성분으로 하는 리튬이온 배터리 양극재로, 양극재의 주성분인 니켈, 코발트, 망간에 비해 에너지 밀도는 낮지만, 안정성이 높고 가격이 저렴

※ (출처 : Financial Times, 2024.06.)